

■ 한국 YWCA 창립 60주년 기념
명예 연합위원 회고담

생활의 변화 위한 활동 벌여



참석자 : 고헌경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 서울여대학장)
김신실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김중희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김폴린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이마리아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 연합회 후원회 이사장)
최이순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사 회 : 박영숙 (연합회 실행위원)

정 리 : 최옥자 (연합회 공보출판 위원)

때 · 곳 : 3월 11일 · 대한 YWCA연합회 이사실

반백년을 Y와 살아온 전문가들



<고 활 경 위원>



<김 신 실 위원>



<김 중 희 위원>

사회: 금년 4월로 한국 YWCA는 창설회갑을 맞습니다. 한국 Y 60년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 민족 국가의 수난기 속에서 자라온 고난의 발자취인 동시에 고난을 극복하며 전진해온 희망의 발자취이기도 한 것으로 자부합니다.

이 뜻깊은 6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창설 초창기부터 활동해 오신 명예연합위원 여러 선생님을 모시고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후배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 그리고 무언가 Y가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사신 삶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사 하는 뜻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YWCA로서는 창설 60주년이 되었지만 한국교회로서는 1984년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 YWCA는 여성운동체로서도 공헌하였지만 어느 교단 못지않게 선교활동면에서도 공헌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정부가 평생교육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 YWCA는 창설 때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평생교육, 기술교육면에 공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되고, 국제관계에서도 뛰어난 외교관 노릇을 하였다고 생각되어요. 오늘에 와서 청년운동체로서는 좀 약화된 느낌은 있지만 YMCA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많은 일을 하는 등 우리 YWCA가 60년 동안 사회운동체로서 어느 단체보다도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공헌을 하였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와같이 Y가 자타가 자랑할만한 기관이 된 것은 초창기부터 Y를 일편단심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의 공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물론이시고 초창기에 관련하셨던 소위 Y우리는 그 시대에 각계의 전문가이셨고 기라성같은 인물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선생님들과 한자리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과 흐뭇한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거의 반백년을 Y와 더불어 살아오셨는데 먼저 처음 Y에 가담하셨을 때 얘기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활경: 내가 Y에 직접 회원, 위원이 되어 활동한 것은 1957년도부터이지만 1922년 내가 경기고녀 3학년때 Y가 창설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1919년 3·1만세사건 이후 1922년이니까 비록 독립에의 열망이 폭발하려다가 실패하긴 했어도 한국 사람의 마음속엔 독립에의 욕구가 들끓었어요. 이때 내가 14세때였는데 그해 여름방학때였던가 우리집에 김필레선생님이 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Y창설에 대해 너무 좋아하시며 자랑을 해요. 김필레선생님은 바로 어머니의 고모가 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도 우리나라가 독립됐다 하는 것만큼 기뻐요. 그런 기억 때문인지 16세에 일본가서 공부하면서도 괜히 Y에 대해 반갑고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Y의 영어반에 나가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때 Y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또 일본에서 보니까 Y활동이 어떤 다른 여성단체보다 세련되었고 그때 사건 일본 Y친구, 오스트랄리아 Y친구들과는 아직도 교류가 있어요.

김폴린 : Y가 창설될 때 나는 이화학당 대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Y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자연히 김활란선생을 열심히 따라 다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YMCA회관을 빌려 활동을 했고 신흥우박사 등 YMCA쪽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흥은경씨 남편인 홍병선씨를 덴마크에 보내 농촌사업을 보게하고 우리 Y도 YMCA처럼, 신촌뒤에 조그만 집을 얻어 4주 과정으로 농촌부녀 지도자를 훈련하였는데 애기를 업고 오는 부녀도 있었어요. 모두 기숙사에 입사시켜 공동생활을 하며 교육과정을 마치게 하였는데 양계, 양돈, 성경도 가르쳤고 흥은경씨가 가사, 음악을 가르치고 나는 체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오락놀이로 숫가락으로 감자나르기, 세발뛰고 뛰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일 같아요. 훈련을 받은 부녀자들이 자기 자기 마을로 돌아가 그들의 배움을 마을을 위해 잘 발휘하더군요. 나중에 일제 당국에서 못하게 했지만.

사회 : 김신실선생님이 하와이에서 오시기 전에 폴린선생님이 Y에서 체육을 가르치셨군요?

김폴린 : 이화에서 배운 것 그대로 했을 뿐이고 미스 파이, 미스 월터가 우리 체육을 가르쳤어요.

김신실 : 내가 한국 Y에서 활동한 것은 1934년 귀국 후지만, 나의 전공인 체육을 공부하게 된 것이 바로 한국 Y 때문이어서 훨씬 전에 Y와 가까운 관련을 가지게 되었어요. 1923년 미국 오벌린대학에서 2학년이 되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우리 하와이에서 함께 간 네 여학생이 모여 너는 사회학 해라, 너는 영문학 해라 하는데 나 너러는 체육을 하는 게 좋겠대요. 나도 체육이 좋고 해서 과장에게 체육을 전공하겠다고 하였더니, 판과 전공은 다 아무 말이 없는데 나만 한참 쳐다보더니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해요. 일주일 후에 가니 과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면서 『신실이 너 체육전공할 수 있어』하면서 한 편지를 내줘요. 뉴욕 Y에서 보내온 편진데 선생님 말씀이 체

육은 학점도 많고 오후에도 운동실기를 하게 되므로 시간이 많이 뺏기는데 졸업후 동양에서 온 아이가 전공을 살릴 데가 있을까 걱정되어 뉴욕 Y에 문의했던 바 『코리아에서 바로 전해에 Y가 창설되었다. 그가 공부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오』라고 답신을 보내온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학다니는 동안 Y회의에서 들었던 한 흑인여성의 흑백차별 현장보고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 한국 Y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활란선생의 권유로 귀국하여 이화전문에서 체육을 가르치면서 활란선생을 따라 Y에서도 하령회때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고는 했지요. 이때 이화전문 학생들이 주일날마다 아침 일찍 학교에서 50-60리 떨어진 농촌에 가서 주일학교를 하는 것이 꼭 인상깊었어요.

사회 : Y가 요즈음 이런 비난에서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한때 Y는 특수여성을 위한 기관이라는 비난이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 1920년대 당시 신학문을 배우고 고등교육을 받은 소위 첨단여성들이 Y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였으니, 그분들이 지도자로서 다수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었기도 했지만 일반의 아직도 봉건적인 여성들에게는 남의 나라 풍경같은 유리감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비난도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때 Y창설을 보고 굉장히 기뻐들 하시고 독립에 못지않는 기쁨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 교회여성들의 움직임과 Y창설의 필요성이 뒤편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사회와의 교량역할 담당

김신실 : 그당시 교회는 전도활동, 복음운동만 했어요. Y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러한 교회와 사회와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최이순 : 나는 여학교에 다닐 때부터 언니(최이원씨)가 가져오는 Y하령회 사진이라든가, Y애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화전문에 다닐 때는 학생 모두가 Y회원이었어요. 그때는 Y가 바로 지금의 학생회와 똑같았읍니다. 그러다가 해방되어 언니를 비롯해서 신의경씨, 차숙경씨, 흥은경씨,



<김 폴 린 위원>



<이 마 리 아 위원>



<최 이 순 위원>

김성실씨 등이 그때 Y를 재건하고 지금의 명동 Y회관자리를 불하말아 명도반기까지 고초를 받던 일 등이 생생해요. 그러나 내가 Y에 적극활동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귀국한 후 1962년 연합회에 프로그램부가 신설되면서 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예요. 여기 고박사, 이태영박사 등 그때 우리 프로그램부 위원들은 지각도 결석도 안하고 열심히 했어요. 종교, 사회문제, 법률, 보건 등 각종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체계화 되었다고 봐요. 지도자 양성에도 힘쓰고 모든 사업이 조직화 되었어요. 그전에는 계몽, 선교활동에만 국한했어요.

내가 프로그램부 활동할 때만 해도 세계 Y의 도움을 받으며 국내 문제에만 치중한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Y가 되었잖아요? 국제 운동체로 발전했어요.

김중희 : 나는 1922년 6월 죽점정(현 충정로) 협성여자신학교에서 열린 첫번째 청년회 하령회때 정신여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으로 처음으로 큰 회의에 참석했던 흥분과 감격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지도자로 나타난 선생님이 김필레선생님, 그리고 이분 말씀을 들으면 김필레선생이 먼저 같은 정신여학교선생인 방신영선생과 얘기하시고 김활란박사랑 의논하여 시작하였다고 하십니다. 유자경선생은 김필레선생님과 친구 사이이고, 살아계신 분으로 신의경, 김영순선생 등이 그때 창립총회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 못하신 최이권선생이 그때 호수돈여학교 학생대표로 참석했더랬습니다. 선교사이신 미세스 매클라렌, 미스 틴슬러, 미스 영, 미스 아펜셀라교장외에 여러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첫번째 창립 하령회에서 그때 옥스포드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갓 돌아온 이관용박사의 「철학은 모든 학문의 원학(源學)이다」라고 하신 철학강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세번 이상 하령회에 참석했습니다. 1929년 신학교 졸업후 동래일신여학교에서 일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 후 15년간 중국에서 사는 동안 Y에 봉사할 기회를 별로 갖지 못했으나 Y는 내 머리 속에 있을 수 없는 기독교여성단체로 기억되었습니다. 해방후 아직 중국에 있을 때 박에스터선생이 재건된 한국Y를 도우러 오셨다는 기사를 읽고 혼자 기뻐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Y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56년 가정생활협회 일을 책임맡고 있을 때 서울Y 회장을 지낸 최신덕선생의 권유로 서울Y 회원으로 정식 등록하고 그후 여기 최이순선생 추천으로 프로그램부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후 연합위원으로, 사회부, 지방부위원으로 미력이나마 봉사해 왔습니다. Y는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여성교육 기관으로 내가 세상에 나서 제일 처음 가담했던 기독교 여성단체요, 제일 오래동안 많은 시간을 바친 기관으로 오늘 창립 60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말 스스로 감개무량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Y는 파별이 없는 곳

이마리아 : 내가 연합회와 직접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46년 일찌기 한

국Y 창설 멤버였으며, 해방후 재건총무로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딛고 한국 Y를 재건한 신의경씨와, 김성실씨가 우리 집에 찾아와 Y일줄 하라면서 회계맡기를 권유한 데에 있어요. 그들은 내 남편 (고 나추전씨)에게도 『미국도 다녀왔으니 부인 좀 해방하라』고 줄기차게 줄라대었어요. 남편도 나중에 후원회 이사, 건물 관리부위원 등으로 Y일을 즐겨 맡게 되었지요. 그때 나는 혜화동에 살았는데 신의경씨도 혜화동에 살았고, 총무를 거쳐 연합회 회장이 되었다가 6·25때 실종된 최예순씨도 바로 옆에 살았지요. 해방후 Y를 재건하고 Y건물을 명도받기까지 돌팔매질도 받고 데모도 받고 온갖 고초받은 일들은 다른 분들도 다 얘기하셨지만 신의경씨가 정말 애 많이 썼는데 오늘 이자리에 함께 모실걸 그랬어요?

사회: 그당시 Y운동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최이순: 해방 전에는 문맹퇴치, 농촌사업 하며 애국고취에 뜻을 두었는데 해방후에는 국제무대에 발을 들여놓고 외교문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1946년엔가 유엔감시위원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김활란선생의 지시로 Y회원이 화환을 가지고 환영을 나갔어요. 유엔교육위원단이 올때도 Y에서 환영했고, 그때 최예순이 환영사를 하고 모운숙 언니도 환영에 나가 메논을 만났어요. 그리고 1948년 유엔에 한국대표를 보낼때 메논이 유엔에 온다고 해서 모운숙 언니를 Y대표로 유엔에 파견했어요.

김신실: 최예순씨가 그때 환영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유가 되어 6·25때 납치되었어요.

이마리아: 해방 직후 Y재건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Y활동을 봉사로 참여하였어요. 돈도 없었고 인재도 부족했으나 1947년 박에스터선생이 오신 후 Y는 큰 발전을 하게 됐지요. 이때 총무였던 최예순씨 집에 선교사가 자주 드나들어 주목을 받았고 마침 임신중이어서 병원에 있다가 그곳 간호원 때문에 잡혀갔어요.

최이순: 예순이는 일요일에 잡혀갔어요. 바로 전 금요일에 우리집에 예순이가 옥색치마 흰저고리를 입고 찾아와 함께 도망갈 것을 의논했었는데,

때, 그때 그 간호원이 이상했지요.

사회: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초창기엔 Y와 Y인물들이 엘리트로서 뭔가 영향력 있게 활동했던 것을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데 오늘날 교육받은 사람들도 많고 각종 여성단체도 많이 생겨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의 특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이순: 학생시절에 나는 Y에 파벌이 없다는 것을 꽤 좋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인파목사의 강연이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빛을 못본 것은 파벌 때문입니다. 당시 서북지방에선 장로교계통이 강했고 서울 등 중남부지방에선 감리교가 세력이 강했어요. Y가 자랑스러운 것은 초교파로서 파벌이 없는 거라고 봐요.

또 Y가 좋은 점은 없는데서 최선을 다해 펼쳐보려는 점이죠. 한 20년전 우리 프로그램부에서 지금 정부가 역설하고 있는 침안벨기, 혼인신고, 보건문제 등을 거론, 캠페인화했지요. 특히 여기 고황경선생이 늘 강조했던 것이 잊히지 않아요. Y운동은 어디까지나 민중과 같이 살면서 생활에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요즘 새마을운동 하지만 Y가 이미 새마을운동 많이 했어요.

이마리아: 나도 장로교계의 정신여학교를 다녔지만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더 보수적입니다. 일제때 여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개편할 때 밋손계의 성경과목이 문제가 됐어요. 이때 장로교계 여학교는 고보가 안되어 학교문을 닫을지언정 성경과목을 안 가르칠 수 없다고 했어요. 옳은 태도이긴 하지만..... 정신여학교를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기기도 했지요. 일제말에 교육인퇴도 같은 성격이지요.

아까 Y재건 얘기하다가 딴 얘기가 되었는데, 해방 직후엔 미국 Y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Y재건에 있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인물은 연합회 후원회의 기초를 마련해 준 조중구씨예요. 구한말 귀족으로 일본에 귀화한 조중구씨가 미스 아펜셀라를 통해 한국에 있던 그의 토지를 우리 연합회에 기증했지요. 이것이 토대가 되어 지금의 서울Y 땅을 마련하고 서울Y 회관



<박 영 속 위원>

을 지을 수 있었고 광주 Y 회관 마련의 기초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연합회만 한 데에 나서게 되었어요. 간사들 월급줄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전긍긍하던 때에 나는 상록회를 조직하여 경상비 및 연합회 재정을 돕도록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회관 마련이라는 대사업이 눈앞에 떨어졌어요. 기금이라고는 동태농예원을 팔은 2천만원 뿐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미국 Y에서는 냉담한 반응이어서 우리들은 순전히 우리 힘으로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 기업체 명단을 가지고 알든 모르든 막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많은 기업체가 크게 작게 기부를 해주었고 미국 와카펠라 재단에서도 5만 불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때 몇몇 기업체엔 당시 회장이던 박마리아선생께서 전화 한통 해주시면 일이 쉽게 될 것 같은데 박마리아선생께서 냉정히 거절하실때 참말 야속했어요. 회장이 저러는데…… 하고 실망도 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상록회가 애 많이 썼어요. 그분들이 방 하나씩을 떼어맡아 꾸렸어요. 건축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마련 못해 박에스터선생이 장롱속에 숨은 적도 있었어요.

사회: 연합회가 재정기반이 잡힌 것은 회관을 짓고 나서죠. 연합위원 총회때 회관 신축이 건의되어 결정하였는데 박에스터선생이 마음에 준비가 안되어 어려워하셨죠. 그러나 점차 회원이 줄면서 어떻게든 짓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득하여 짓고 이것으로 해서 지방 Y 18개가 전세집이라든가 갖게 되었죠. 지금 이마리아선생님 말씀중에 박마리아선생이 섭섭했다고 했는데 다른 측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초교파, 초정치적인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이런 점에서 박에스터선생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어요. 이마리아

선생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박마리아선생에게 섭섭하게 느꼈을 수도 있으나 또 박마리아선생이 은근하게 기대하셨던 것을 박에스터선생이 그 당시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굳굳하게 Y를 초정치적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봉사는 어디까지나 봉사이어야

김신실: 그러나 나는 박마리아씨가 도와주지 않은 그런 사실은 몰랐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박마리아씨가 Y 안에서 Y 사람으로 행동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최이순: 그러나 박마리아씨가 Y회장이었기 때문에 Y에 협력안한 분 많아요. 특히 윤종선씨 같은 분은 이사회에서 『박마리아씨가 홀통하지 않다는 것 아니다. 여성지도자가 많은데 어째서 그분을 오래 유임시키느냐』고 정식 거론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몇해동안 박마리아씨 자신은 Y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밖에서 Y를 보는 인상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고황경: Y는 항상 불편부당(不偏不黨)이 자랑이죠.

사회: 우리 Y가 초 정치적인 수 있었던 것은 세계 Y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Y가 일제말에 세계연맹을 탈퇴할 때 세계 Y는 본국의 직접 탈퇴요청이 없는 한 회원국 자격을 유보한다고 하였어요. 제가 어느 해인가 Y세계대회에 갔을 때 중국 Y가 지금은 없으니까 제명하자는 안건이 나왔어요. 이때 중국의 직접 탈퇴요청이 없음을 들어 부결시키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세계 Y 정책은 옳은 것이지요.

여러 선생님께서 초창기부터 출근 우리 Y를 지켜주시고 몸, 귀, 손, 발이 되어 주시지만 지금은 그래도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Y를 바라보시면서 초창기 프로그램과 요새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마리아: Y는 이제 젊은 일꾼들도 많고 또 참 잘들해요. 한국에서 으뜸가는 여성운동기관으로 계속 존속해 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가지 섭섭한 얘기를 들었어요. 연합회에서 회의할 때 지방대표 어느 분이 여비를 청구했다고 해요. Y

는 본시 봉사기관인데 그 애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최이순: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번은 어느 목사님이 『최선생, 맹물먹고 사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까지 Y행사의 연사나 좌담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또 그것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막 야단을 해요. 그 이후 Y에서도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불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연합회가 무얼하는 곳인지를 잘 몰라요. 연합회가 지방 Y를 도우는 곳인 줄 알고 자꾸 돕다 보니 목포 Y의 아동원 문제같은 일도 일어났어요.

이마리아: 요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지방 Y의 재정이 미약하여 연합회가 돕고는 있지만 무상분양이나 무상대여는 없어요. 규칙이 잘 되어 있어요.

고황경: 미국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내가 관여하고 있는 어머니회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사회: 세계 Y회의에 갈때 우리 Y가 미약한 때 여성인지는 몰라도 세계 Y로부터 여비를 받았어요. 그러나 발란티어가 경비를 받는다는 얘기는 못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여하고 있는 몇몇 단체에선 분명히 남자의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인지, 똑같은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남자위원에게는 거마비를 주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Y는 기독교운동체로서 봉사기관이고, 유급간사를 제외한 각 위원이나 이사들은 발란티어 지도자들이죠. 상황의 변경에 따라 연구할 문제이지만 아직은 본래의 무급봉사제도가 좋은 것 같군요.

김종희: 우리 기독교계가 요즈음에 와서 사회로부터 비판 내지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Y는 봉사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여비받고 대접받고 하는 그 폐풍을 없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봉사는 어디까지나 깨끗이 봉사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가 지역위원회 중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왜 Y가 기독교 단체인데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회원이 싫어한다고 해서 성경공부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Y안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프로그램부 위원이 되면서 처음 있었던 실무자 훈련기간에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이 열심히 듣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을 보았을 때와 서울 Y에서 1년반 동안 베델성서 연구반(14명)을 맡아 지도했던 속에서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던 일입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근래에 와서 연합회를 비롯해서 각 지방 Y가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참으로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하나 아까 사회자가 남녀차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교회안에서의 남녀차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에서 더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 목사가 설교해야 더 권위있어 보이고,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여자 목회자보다 남자 장로의 설교를 더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지지 않도록 하려면 남자보다 더 열심히 성경공부하고 좋은 기독교 서적과 그외의 여러가지 좋은 서적들을 신중히 선택해서 열심히 읽어 풍부한 사고력과 비판력을 길러야 합니다.

선각자적인 정신 이어 받아야

최이순: 신앙생활 강화문제가 몇년째 전국대회 중점사업으로 채택되어 왔는데 그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계속 추진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연합회 이사는 반드시 지방 Y의 회원이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또 공천위원회에서 이사 후보를 공천할 때 회원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공천하는지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김폴린: 일제시대나 내가 서울 Y 총무로 일하던 해방 초기엔 성경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너무 부흥회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김신실: Y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든 각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한 5분씩 성경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성경구절을 한구절씩

읽는다든가.....

사회: 지금은 Y분위기가 성서연구에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베텔성서연구 같은 집중적인 교육도 있고, Y가 교회를 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최이순: Y성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면 프로그램 지도자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사회: 60년을 맞은 오늘의 한국 Y는 성숙기를 지나 장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년기에는 안정에 치우치고 만능리즘에 빠지기 쉬운 시기인데 앞으로 청년운동으로서, 여성운동으로서, 기독교운동으로서, 그리고 국제적 운동체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잘한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꼭 Y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이순: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을 전개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시대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해 나가야 할 거예요.

사회: Y 6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때 초기의 Y는 개혁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와서는 기존가치에 적응시키는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회갑을 맞은 우리 Y는 다시 창

설 초기에 충만했던 개혁 분위기를 되살려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창출하는 운동으로 점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교 100년을 맞는 교계에 안에서의 자아비판은 물론 밖에서의 비판도 드높습니다. 한 쪽에선 형제교회가 굶주리는데 또 한쪽에선 수만 신도, 수십억 헌금이 쏟아지는 초현대 호화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Y가 교회의 비판세력이 되어야겠고, 산업사회가 메마른 소비사회가 된 것에 대하여도 비판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여성이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화대학에서 열렸던 전국대회때 의도적으로 Y 자체내 지도자로만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각계의 여성지도자들이 여성들의 지도력에 놀라고 감격했던 적이 있어요. 여성 지도력은 역시 우리 Y가 선구적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의도적으로 여성 지도력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타파하는 데에 앞장서야 되겠어요.

오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초창기 여러분들의 선각자적 정신—— 그때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여성 스스로가 깊은 잠을 깨는데 Y가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될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4월 28일은 세계 YWCA의 날

주제: 지구를 보호하자

금년도 세계 YWCA의 날은 「지구를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4월 28일에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게 된다.

세계 YWCA에서는 환경의 문제들이 경제, 사회, 그리고 인간개발을 위한 모든 분야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지구가 더 이상 파괴되어 가는것을 막기위해 Y 회원들로하여금 이 문제에 관심갖고 활동하도록 이 주제를 설정한 것이다.

세계 YWCA의 날은 4월 28일 하루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금년내내 YWCA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Y의 날 자료는 번역되어 지방 Y로 발송되오니 그 자료를 보시고 프로그램 전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